

꾸준히 노력하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비 프론트엔드 개발자 정상태입니다.



정상태 1993년 (30세/만 29세) | 남

✉ wjdtkdxo55@naver.com

☎ 010-9953-1983

☎ 010-9953-1983

🏠 (62281) 광주 광산구 월계로

학력사항	경력사항	희망연봉	희망근무지/근무형태	포트폴리오
대학교(4년) 졸업	신입	회사내규에 따름	서울전체 정규직	https://new-portfolio-chi-two. ver-

학력 최종학력 | 대학교 **4년** 졸업

재학기간	구분	학교명(소재지)	전공	학점
2012.03 ~ 2019.02	졸업	호남대학교 (광주)	인터넷소프트웨어	3.28 / 4.5
		논문&졸업작품 언리얼엔진4를 이용한 배틀로얄게임 제작		
2009.03 ~ 2012.02	졸업	송덕고등학교	이과계열	-

자격증/어학/수상내역

취득일/수상일	구분	자격/어학/수상명	발행처/기관/언어	합격/점수
2019.11	자격증/면허증	정보처리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최종합격

보유기술

보유기술명/수준/상세내용
CSS3 Tailwind CSS
HTML5
GitHub
Python Django
JavaScript

취업우대사항

병역대상	군필 2013.10 ~ 2015.07 육군 병장 만기제대
------	---

포트폴리오/기타문서

파일 구분	파일명
포트폴리오	https://new-portfolio-chi-two.vercel.app/

자기소개서

[나의 성격(장/단점)]

[대학교 프로젝트에서 발견한 강점]

4학년 1학기, 졸업 프로젝트로 팀원 한 명과 함께 UE4를 이용한 게임 개발했습니다. 저는 기본 캐릭터 조작, 캐릭터 모델링, 아이템 등을 맡고 팀원은 맵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그중 첫 작업 중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참고할만한 교재가 없어 UE4 카페에서 튜토리얼로 올라온 강의들에만 의존해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JAVA, C#과는 다른 3D 모델링 관련 작업이 필요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버거운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구현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졸업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과정과 해결해나가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했지만, 팀원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연구와 회의를 계속해나갔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찾던 중 mixamo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어 mixamo에서 가져온 정보를 Adobe Fuse에서 편집하여 3D 모델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힘든 일이라도 혼자서 전전공공하는 것보다는, 팀원과 협력해 포기하지 않는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더 나아가 자체의 근성과 노력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배포 실패에서 성공까지 포기하지 않은 의지]

[Airbnb Clone에서 다시 2022 Airbnb Clone]

처음부터 다시 웹 개발 공부를 시작할 때 Front-end뿐만 아니라 Back-end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 Airbnb Clone 코딩 강의로 시작했습니다. 옛날 강의를 통해 듣다 보니 버전 문제로 오류도 많았고, 그래서 버전을 낮추어서 문제를 해결해가며 배포에 가까워졌었습니다. 그러나 AWS를 이용해 배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포기하려고 할 때 ReactJS, Django, Python을 이용한 2022 Airbnb Clone 강의로 업그레이드되었기에 차라리 그 강의에서 배운 것을 복습하며 첫 배포로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다시 도전했습니다.

최신 강의라서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며, Render를 통해 배포하려고 할 때 도메인 설정 과정에서 DB 연결이 꼬이게 되면서 또다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Render에 연결한 Front, Back, DB를 전부 삭제한 후 다시 Front, Back, DB를 연결해 도메인 설정 후 배포에 성공했습니다.

첫 배포에 실패해보고 비슷한 강의에서 또다시 실패하려 할 때 포기하지 않고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도해보며 배포까지 성공시켰을 때 스스로 끝까지 해내는 개발자의 길에 한 걸음 다가갔다고 느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그리고 경험]

[SSR Framework 그리고 Notion의 활용성]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정보를 찾아다니던 중 유튜브에서 NextJS를 이용한 포트폴리오 제작 강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Nextjs는 들어만 봤을 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SSR Framework였습니다. 그래서 막상 두려움에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배워오고 공부해온 거로 해야 하지 않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Front-end 개발자라면 새로운 것에 대해 계속 도전해야 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적응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강의 내용을 봐보니 NextJS, Tailwind CSS, Notion API, Vercel을 활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Tailwind CSS를 제외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의를 통해서 SSR Framework에 대해 배우며 또 한층 성장하고 Notion이라는 걸 Back-end로 사용하고 또한, 협업 그리고 포트폴리오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 가능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Render를 이용하여 배포는 해보았지만 Vercel은 처음 접해보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어렵게 느껴졌지만, NextJS를 사용한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배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며 경험해보고 정보를 찾아 배우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를 깊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돌고 돌아 Typescript, 그리고 React]